

8 8 8 8 8 8

즉 이와 같이 6x4의 형태를 갖는 배열로 생성됩니다.

배열의 크기 부풀리기

배열 내 값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크기만 더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원본 배열은 [2, 5, 7, 8]과 같이 4개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수를 12개로 늘리면서 값들 자체는 각각 3개씩으로 늘어난 형태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즉 [2, 2, 2, 5, 5, 5, 7, 7, 7, 8, 8, 8]과 같은 구성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CONGRID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r0 = [2, 5, 7, 8]
arr = CONGRID(arr0, 12, /CENTER)
```

이렇게 하여 생성된 배열 arr의 값들을 출력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4개씩으로 부풀려서 2, 2, 2, 2, 5, 5, 5, 5,와 같이 만들고자 한다면 위의 CONGRID 함수 내용에서 12를 16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IDL 유저들에게 CONGRID는 그리 낮은 함수는 아닙니다. 아마도 주로 2차원 이미지 배열의 크기를 변경할 때 많이들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조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원 배열에 원소 추가

배열에 대하여 원소값을 추가적으로 계속 붙여나가면서 그 크기가 점점 늘어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6, 4, 7]로 3개의 값들로만 구성되었던 배열이 있을 때, 값을 추가적으로 붙여나가면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배열 크기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 괄호 안에 원본 배열과 추가될 값을 함께 적어주면 됩니다.

```
arr = [6, 4, 7]
arr = [arr, 2]
HELP, arr
ARR INT = Array[4]
PRINT, arr
6 4 7 2

arr = [arr, 5]
HELP, arr
ARR INT = Array[5]
PRINT, arr
6 4 7 2 5
```

이와 같이 배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초기 배열이 null이어도 됩니

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셈입니다.

```
arr = !null
arr = [arr, 2]
arr = [arr, 5]
arr = [arr, 4]
```

이렇게 하면 arr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null이었지만 결국 [2, 5, 4]의 형태를 갖는 배열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은 반복형 구문에서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즉 처음에는 배열의 크기를 정할 수 없지만 계속 값들을 붙여나가면서 제대로 된 배열로 완성해가야 하는 작업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2차원 배열에 행 또는 열 추가

앞에, 1차원 배열에 원소를 추가하여 배열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2차원 배열에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x2의 구조를 갖는 2차원 배열을 정의하고, 여기에 [20, 20, 20]과 같은 가로 방향의 행(Row)을 붙여서 3x3의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
arr = [[7, 6, 3], [9, 11, 8]]
arr = [[arr], [20, 20, 20]]
```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3x3 배열이 됩니다.

```
7 6 3
9 11 8
20 20 20
```

세로 방향의 열(Column)을 붙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TRANSPOSE 함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
arr = [[7, 6, 3], [9, 11, 8]]
arr = [[arr], TRANSPOSE([20, 20])]
```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4x2 배열이 됩니다.

```
7 6 3 20
9 11 8 20
```

이런 개념은 다차원 배열에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차원 배열에 채널을 추가하는 상황 같은 거죠.

그 외의 기법들

오늘 소개된 내용과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swrush/546>